

석유, 100만-200만배럴도 충격적

IEA, 공급차질 줄어도 가격폭등 가능성 ... 석유제품 소비절감 필요

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원유 수입국들이 원유 공급감소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. IEA는 3월31일 “원유 공급이 현재보다 하루 100만-200만배럴 감소하면 충격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원유 소비국들은 수요억제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IEA의 경고는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57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.

IEA가 비상상황의 기준으로 설정한 하루 원유 공급감소 100만-200만배럴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IEA가 국제적으로 합의했던 하루 600만배럴(세계 원유 생산량의 7%)에 비하면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.

하루 100만-200만배럴의 원유 생산량 감소는 2003년 미국-이라크 전쟁 때와 2002년 베네주엘라의 유전파업 때 발생했었다.

클로드 만딜 IEA 이사는 “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 각국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석유 소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며,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고유가 시대를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IEA가 제안한 석유 소비절감 대책은 △자동차 운행금지일 지정 △고속도로 속도제한 25% 하향조정 △근무 일수 단축 △무료 대중교통 확대 △카풀 장려 등이다.

<화학저널 2005/04/04>